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18호 금동미륵반가상



반가부좌만 하신게

이인원

무슨 화두에
얼마나 골몰했으면
턱을 괴었던 팔이 다 부러졌을까
아니다,
부러진 것은 미륵보살님의 팔이 아니다
3일도 못 가는 우리들의 작심이다

무슨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웠으면
팔꿈치가 부러져나가고도 턱은 무사했을까
아니다,
자유로운 것은 미륵보살님의 턱이 아니라
손바닥보다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부처의 가르침이다

중도이 특특 끊어지는 생각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미망의 턱을 넘어선 깨달음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
넌지시 한 말씀 보여주시네

그대 만약
결기부좌가 힘들면 반가부좌도 좋다고 빙긋 웃으시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이인원 시인은... 경북 점촌 출생. 1992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마음에 살을 베이다〉, 〈빨간
것은 사과〉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哭不徹笑不徹 〈곡불철소불철〉이라.
倒腹傾腸向君說 〈도복경장향군설〉이니.
父子非親知不知 〈부자비친지부지〉아.
擡頭腦後三斤鐵 〈대두뇌후삼근철〉이라.

금일(今日)은 임진년 동안거 결제일이
라. 모든 사부대중은 일상생활 중에 각자
화두(話頭)를 들고 화두의심으로 일념(一
念)이 지속되도록 혼신을 다하여 의심에
집중할지이다.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던고?”, 이 화두를 챙기
되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하고 또
챙기고 의심해서, 다른 모든 잡생각들은
다 끊어지고 오로지 화두의심 한 생각만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야 함
이로다.

그렇게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빠져
서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린
바보가 되어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참나에, 소
리를 듣는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됩
니다.

〈중략〉 결제에 임하는 모든 대중, 어느
곳이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린 곳이고?
이 낙처(落處)를 아실 것 같으면 금일이
곧 해제(解制)로다.



금생(今生)에 이 견성법(見性法)을 해
결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또 만나
리오.

다견생(多生)으로 윤회고(輪廻苦)에
서 헤매이다 비로소 인간 몸을 받아 큰 인
연복이 있어 부처님의 견성법을 만났는
데, 하루하루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낸다면 죽음에 다다라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으로다.

그러면 또 다시 인간 몸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인간 몸을 받았다 하
더라도 이 견성법을 만나는 것은 더더
욱 힘든 일이니, 선지식의 바른 법문을 들
고 대오견성(大悟見性)의 원(願)을 세워
바르게 참선수행을 닦아나기만 반드시 좋
은 소식 있을 것이니, 이번 석 달 안에 어
떻게든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도래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이다. 〈하략〉

“깨달음에 확고한 믿음 갖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화엄경(華嚴經)〉 ‘현수품(賢首品)’ 에

신위도원공덕모 장양일체제선근(信爲
道源功德母 長養一切諸善根)
단제의망출여유 개시열반무상도(斷除
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지극한 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 일체의 선근을 잘 길러내나니 의
심의 그물을 끊어 제거하고 애정의 물줄
기에서 벗어나 위없는 열반을 길을 열어
보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제방의 수행납자들은 무엇보다 도에 대
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행을 잘 지키고 굳건한 신심을 지녀
야 마구니의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
니다. 지극한 믿음과 신심으로 용맹 정진
하여 애욕의 물줄기를 벗어나 천성(千聖)
의 길을 끊어 뇌관(牢關)을 타파하고 태고
의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이치를 깨쳐야
합니다.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심성은 혼탁해지고 오염되어 자신의 참모
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성품을
관조(觀照)하여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무
심(無心)의 묘리(妙理)인 최상승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일체 명안종사(明眼宗師)들이 문자와
언어를 벗어나 참나의 변척이는 선기로서
후학들을 제정할 때 안목(眼目)이 제대로
열린 납자들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도
리를 깨달아 증득하듯, 도를 구하는 자들
은 마땅히 어린이가 엄마 찾듯이, 배고
픈 송아지가 어미젖을 찾듯이, 목마른 이
물을 찾듯 오매불망 간절하게 참구하여야
합니다. 제방의 납자들은 이번 한철 마구
니에 속지 말고 부디 열린 안목으로 활구
를 찾길 바랍니다. 〈하략〉

삼처에 문수가 나타나다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어느 해 결제 때 문수는 세 곳을 돌면서
안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섭은 구순
(九旬)의 금족(禁足)기간에는 있을 수 없
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을 가
리기 위해 대중을 운집시키고자 종망치
를 잡으려는 순간 백천만 억 문수가 눈앞
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섭 역시 온갖 신
통력을 동원하지만 여전히 망치는 꿈쩍
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가섭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수한 문수 중에 어떤 문수가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가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
니다. 〈중략〉

문수가 삼처(三處)에 나뉜 것은 그대로
가 삼처전심(三處傳心)입니다.



공경과 학교와
시장은 탐진치(貪
瞋癡) 삼독(三毒)
을 가르킵니다. 오
백개의 탐욕심과
오백개의 짜증내는
마음과 오백개의
어리석은 마음을

잘 다스린 문수의 안거였던 것입니다.
이번 동안거 결제대중은 탐진치 삼독
이 만들어낸 천오백가지 번뇌를 단박에
제거하여 자기 안의 문수지혜를 현현케
한다면 문수의 삼처(三處)가 문 밖의 일
인지 문 안의 일인지 명명백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입림부동단초(入林不動單草)요
입수불양일파(入水不揚一波)로다

용맹심에 사무쳐 수행 정진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觀是何人心何物인가
本來這個不須尋이라
百花落盡春無盡이요
山高兮水自流로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근본실체를 깨달
아 일체 중생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보살정신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그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기
만 했다면 영원히 정각을 성취할 수 없었
을 것이요, 높은 금강좌에만 앉아 있는 부
처는 참 부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중생
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배가 있어
도 물이 갇지 않음
면 띄울 수가 없습
니다. 수행자의 마
음은 이렇듯 대자
비로 깊어져야 합

니다. 한 중생도 의지하지 않는 중생이 없
게 해야 합니다.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욕으로 감안을 삼
고 정진으로 노를 삼아서 어떤 장애가 닥
쳐와도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용맹심으로 밀바닥까지 사무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입
니다. 〈하략〉

“모든 법 한 순간 통하리라”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向上一路의 眞如佛性是 傳法이라 전할
수 없고 받아들여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第一義
諦가 아니다.

禪門에서 公案은 선사들이 중생을 향
한 자비심으로 만들어 낸 門 없는 門이고,
法 없는 法이다. 眞如佛性은 自身이 직접
보고 證得해야 한다. 이것은 精進해서 定
力を 向上시키는 도리 밖에 없다. 一念不
亂하여 정진해야 한다.

처음工夫할 때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
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지만 길게
해야 할 방법은 아니다.

현재 한국 禪房에서 정진하는 태도는
철저히 靜中工夫이지 動中工夫는 아니다.



정중공부에 길들여
진 사람은 靜處에
서는 좀 뒤 늦 하지
만 動處에서는 지
리멸렬 상태가 되
는 경우가 허다하
다.

修行의 目的은
靜動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
니하고 塵世 속에서 큰 작용을 하면서도
俗世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一念精進하여 能所가 모두 사라지고,
根塵이 비어지고, 前後생각이 끊어져 分
明하고 똑똑해 지면 여기에 生死永斷의
眞消息이 있는 것이다.
動靜一如하도록 정진할 일이다.
〈하략〉

Large advertisement for '화엄의 바다에 초대합니다' (Invited to the Sea of Hwaem).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uddha statue and a detailed schedule of events from December 13, 2012, to January 11, 2013. The schedule lists dates, times, and specific activities like lectures, sutra readings, and retreats. The event is organized by the Buddhist Education Center of Woncheon Temple.